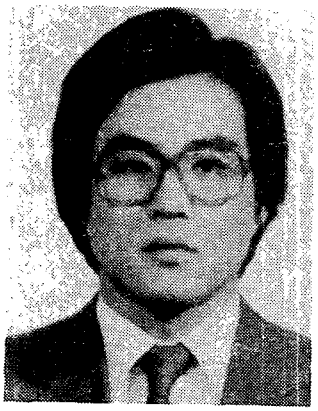
고래잡이에 대한 反省



李 相 敦
〈中央大 法大 助教授·法博〉

捕鯨業에 대한 금지조치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바람직한 일이다.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생태계에 人間이 영향을 주어 그 리듬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곧,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위협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984년 英國에서 개최된 제34차 國際捕鯨委員會(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는 고래資源의 보호를 위하여 1986년부터 5년간 捕鯨業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금년도 조업시즌이 끝나는 10月부터는 일단 고래잡이를 中斷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래잡이의 母港인 長生浦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기에 바쁘고 포경선박과 선원에 대한 對策 마련에 부심한 듯 하다."(東亞日報 85. 7. 25字 기사) 우리 나라가 國際捕鯨委員會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고래의 保護를 주창하여온 美國의 압력때문이다. 즉, 이에 불응한 경우 北洋에서의 操業權이 박탈되고 對美水産物 輸出이 막히는 등 엄청난 經濟的 報復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捕鯨業은 그다지 큰 규모는 못되어서 21척의 捕鯨船이 연안에서 年間약900마리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捕鯨業에 대하여 自然保護 또는 環境保全의 관점에서 비판이 가하여 진 적도 없었던것 같고, 단지 고래잡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흥미로만 생각된 듯하다.

그리고 고래잡이의 종식도 經濟的 壓力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결코 環境保護運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世界的 觀點에서 볼 때 고래잡이, 즉 捕鯨業은 人間의 行動이 自然을 어떻게 파괴하였나를 보여 주는 시범적 케이스이기도 하다. 地上世界에서 가장 進化된 生命體인 人間(Homo Sapiens)의 海洋世界에서 가장 進化된 生物인 고래(Cetacean)에 대한 태도는 人間이 自然을 어떻게 다루어왔으며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장 실감있게 보여주는 것이다. 以下 고래잡이의 역사와 捕鯨業의 規制에 관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反省을 시도하여 볼까 한다.

1. 捕鯨業의 歷史

고래잡이는 古代에도 있었다고 하지마는 근대적 의미의 고래잡이, 즉 捕鯨業은 11~12세기에 바스크族이 비스케灣의 해안에서 Right Whale을 잡았던 것이 그 기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바다에는 고래까지 흔하였고 Right Whale은 몸집이 크고 행동이 느리며 죽으면 해면으로 떠올라서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Right Whale이라는 이름이 보여 주듯이 이 고래 종자는 너무나 잡기가 알맞아서 (Right) 숫자는 곧 줄어들었고 13세기에 들어와서 비스케灣에서는 멸종되고 말았다. 그러자 15세기에 들어서 바스크族은 고래를 찾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니 이때부터 遠洋捕鯨業(Pelagic Whaling)은 시작된 것이다. 바스크族의 고래잡이 기술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었고, 이에 따라 17세기에는 全 北大西洋에서 Right Whale은 全滅되었다. 그러자, 네델란드를 위시한 北歐의 捕鯨船은 Bowhead Whale를 잡기 시작하였다.

Right Whale과 Bowhead Whale은 모두 몸길이가 평균 20미터나 되는 수염(Baleen)을 가진 대형 종자였다. 17세기에는 美國의 뉴·잉글란드 지역에 捕鯨業 기지가 형성되었고 北大西洋 전체가 고래잡이의 무대가 되었다. 이러한 남획의 결과로 17세기말에는 Bowhead Whale도 역시 北大西洋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따라서 捕鯨業은 일단 위기를 갖게 된다. 이들 고래 종자는 수염과 기름(Oil)이 큰 상업적 가치를 갖고 있었고 고기(Meat)는 동물의 사료로 대부분 쓰였다고 한다.

1712년 일단의 捕鯨船은 Sperm Whale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고래를 발견하였는데 이 고래의 고기는 특유한 냄새로 食用할 수는 없지만 그 기름은 탈때에 그을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이때 부터 Sperm Whale의 남획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여하튼 Sperm Whale에서 나온 기름은 18세기~19세기 중반까지 램프의 연료로서 구라파와 미국의 밤을 밝혀 주었다. 그러나, 1870년대에 石油램프가 등장하자 Sperm Whale에 대한 수요는 없어졌고 오늘날 그 기름, 즉 Sperm Oil은 최고급 윤활유로서 大陸間彈度미사일 등에 쓰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1860년대에 汽船과 이른바 Harpoon砲가 발명되어 고래잡이의 장비는 대폭 강화되었다.이즈음 捕鯨船團은 남아프리카와 호주·뉴질랜드 근해에까지 진출하여 北大西洋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춘 Right Whale, Bowhead Whale, 그리고 Humpback Whale을 잡았다. 같은 무렵 미국의 太平洋 연안에도 捕鯨業이 성장하였는데 Gray Whale이 그 주요한 대상이었다. Gray Whale은 무리를 지어서 礁湖(Lagoon)에서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며 서식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포경선단은 이러한 礁湖를 찾아서 무차별한 집단살육을 감행하였고 이리하여 1890년경에 Gray Whale은 太平洋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노르웨이에서 고안된 Harpoon砲는 작살의 끝에 폭약을 넣어서 이것이 고래의 몸에 맞으면 폭발하면서 공기를 고래의 체내에 불어 넣는 것인데 이로써 죽으면 바다에 갈아 앉는 Blue Whale(평균 신장 30미터)과 Fin Whale(평균 신장 20미터)을 포획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이 두 종자는 빠른 시일내에 북대서양에서 멸종되어 갔다. 이에 捕鯨船團은 아이슬란드와 뉴·펀들란드 근해에 까지 뻗어나갔다.

1903년에는 잡은 고래를 海上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工場船(Factory Ship)이 등장하였고, 1905년에는 노르웨이의 捕鯨船團이 工場船과 함께 南極海域에 진입하여 南極捕鯨時代를 열었다. 南極海에 진입한 이들 船團은 우선 잡기 쉬운 Humpback Whale을 잡았고 Humpback Whale이 고갈되자 속력이 빠른 Blue Whale을 잡았다. 그 당시의 고래잡이는 낭비적인 면이 많았는데 잡은 고래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도려낸 후 나머지는 그대로 바다에 버렸고 그리하여 남극해는 썩어나가는 고래의사체로 뒤덮혔다고 한다.

1913~14년에 남극에서는 15,000마리의 고래가 잡혔는데 이는 전세계의 포획량의 80%에 해당하였다. 포획량은 갈수록 늘어서 1931년에

는 무려 43,000 마리가 포획되었는데 이 해는 고래기름의 최고생산기록을 보인 해이기도 하다.

이후 포획된 고래의 숫자는 증가하여도 기름생산은 오히려 줄었는데 이는 기름이 풍부한 Right Whale, Blue Whale, Humpback Whale 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2. 捕鯨業에 대한 國際的 規制

捕鯨業을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國際的 會議는 1931년에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에 14개국이 참가한 國際會議는 「捕鯨業의 規制를 위한 協約」(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을 채택하였고 이에 의하여 國際捕鯨委員會(IWC)가 탄생하였다. 위의 協約의 目的은 고래 종자의 적절한 활용(Optimum Utilization) 즉, 종자를 보전시켜 가면서 고래를 잡자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委員會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고래를 잘 잡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 결코 自然保護나 휴머니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國際捕鯨委員會가 채택한 방식은 쿼타制로 1949년에는 南極 捕鯨業에 16,000 b.w.u (Blue Whale Unit : 즉, Blue Whale로 환산한 단위)를 上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고래 종족의 보존에도 실패하였을 뿐더러 오히려 이른바 "捕鯨올림픽"(Whaling Olympic)을 조장하였다. 즉, 南極海에 진출한 各 船團의 工場船은 매주 그들이 처리한 고래의 수를 國際捕鯨委員會(IWC)에 보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IWC는 그해의 고래잡이 시즌의 마감일자를 공고하였다. 그리하여 마감일자가 닥쳐오자 각 선단은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全力을 다하여 고래를 잡았는데 그 경쟁은 올림픽 경기를 방불케 하여 선원들은 며칠씩 잠도 자지 않았으며, 南極海는 싯뻘건 고래의 피로 처절하게 물들었던 것이다. "捕鯨올림픽"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國家別 쿼타制는 1962년에야 설정되었으나 포획쿼타를 고래의 種子別로 하자는 주장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여하튼 1963년의 총 쿼타는 10,000 b.w.u 이었다. 1963-64년이되자 西方國家들은 비로소 自然保存的(Conservationist)인 분위기로 돌아갔으나 日本과 소련은 오히려 이때부터 捕鯨船團을 확충하였다.

IWC는 1965년에 Blue Whale의 포획을 금지하였으며 南極海에서의 총 쿼타를 4,500 b.w.u로 설정하였지만, IWC의 非會員國인 칠레와 페루의 선단은 그해에 450마리의 Blue Whale을 잡아서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IWC는 1967년에 남극해의 총 쿼타를 3,200 B.W.U로 설정하였고 1969년에는 2,700 b.w.u로 하였다. 그러자 고래잡이는 다시 北太平洋으로 옮겨 갔고 체구가 작은 Sperm Whale, Mink Whale 그리고 Sei Whale이 주된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거세어진 環境保全運動의 결과로 美國政府는 1970년대초에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하였다. 즉, 1970년 당시 내무장관 Hickel은 8종의 대형고래를 위협받는 種子(Endangered Species)로 지정하여 이의 포획의 금지는 물론, 이들 고래의 제품의 수입도 금지시켰으며 美國內에 남아 있던 捕鯨基地의 폐쇄를 명하였다. 한편, 1971년 美國議會는 이른바 Pelly修正法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國際的 漁業規制를 위반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IWC의 결성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美國에 水産物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環境會議는 그 결의33號에서 모든 商業的 捕鯨業을 10년간 유예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IWC는 이 권고를 검토하였는데 日本은 이러한 권고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하튼 美國政府는 IWC에 고래잡이를 10년간 猶豫(10 Year-Moratorium)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이는 6對4(기권4)로 통과하지 못하였다.

1974년에도 猶豫案은 제출되었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하였고 그 대신 種子別로 선별하여 유예하는 案이 채택되었고, 1976년에는 北太平洋의 Mink Whale과 北大西洋의 Sei Whale

및 Sperm Whale 에도 쿼타가 적용되었다.

1982년에 조인된 UN 제3차 海洋法協約은 제65조에서 "모든 국가는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고래의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국제조직을 통한 특별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 IWC는 1986년부터 5년간 捕鯨業을 전면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日本과 蘇聯등 수개국이 異議申請을 하여 놓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3. 고래는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自然의 모든 사물을 人間을 중심으로 한 利用對象으로 보는 立場에서는 고래는 人間에게 살코기와 유지를 제공하는 資源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입장에서 人間은 200년 동안 고래에 대한 大殺戮을 자행한 것이고 다른 魚類와는 달리 포유류인 고래는 번식능력이 부족하여 切滅의 위기에 선 것이다.

한편, 고래잡이에 반대하는 自然保護的 입장은 주로"知能이 발달한 포유동물에 대한 살육은 非人間的이다"하는 다소 관념적인 이론에 서 있다. 여하튼 고래잡이에 대한 反對理論은 대략 다음의 세가지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고래잡이에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고래에 대한 살육은 정당한 理由가 없다는 것이다. 고래는 처음에 人間의 장신구의 재료가 될 수염 때문에, 그리고 유지 때문에 살육되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고래를 살육한다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대체적인産物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고래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똑같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고래를 잡는 에스키모族은 그 나름대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經濟大國인 日本이 商業的인 포경업을 한다는 것은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Henry Thoreau는 수염과 유지를 얻기 위하여 고래를 살육하는 것은 상아를 얻기 위하여 코끼리를 살육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 人間보다 강한 種子가 人間의 뼈로 그들의 옷의 단추를 만들기 위하여 人間을 살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파한 바 있다.

둘째로, 고래의 保護問題는 人間이 이 地球의 生態界를 보존할 능력이 있는가에 관한 테스트 케이스라는 점이다. 고래야 말로 그 種子 자체가 切滅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生物이다. 따라서 고래가 切滅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어떠한 生物種子가 切滅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美國의 저명한 生物學者 Lee Talbot는 고래야말로 人間이 지구의 生物資源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가의 능력에 관한 문제를 상징하며 따라서 人間이 고래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다른 生物資源의 관리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10년전에 경고한 바 있다.

세째는, 道德的 또는 倫理的인 이유에서이다. 人間은 知能이 높은 動物을 결코 食用하지 않았다. 극소수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개나 말을 먹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말고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 고래는 그 지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체구가 작은 Killer Whale, 그리고 돌고래(Dolphin, Porpoise)는 특히 그러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Herman Melvil 의 소설 "Moby Dick"은 사실은 고래와 인간과의 感情交互를 그린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청소년을 위한 소설로 요약·번역된 소설 "白鯨"은 고래를 정복되어야 할 괴물로서 묘사하지 않았나 한다. 뿐만 아니라, 自然의 구성원인 한 生物種子를 人間이 인위적으로 멸종시키는 것은 분명히 非人間的이고 非道德的이다.

John Rawles는 "正義論"(On the Theory of Justice)에서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은 非道德的이고 어느 種子를 切滅시키는 것은 특히 그러하다"고 說破한 바 있다.

고래잡이가 옛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등줄기에서 물을 뿜고 유유히 헤엄쳐가는 고래떼를 부산에서 제주를 가는 페리호의 갑판에서 보면서 온 家族이 바캉스를 떠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기원하는 바이며 다음 기회에는 돌고래의 보존문제를 소개할까 한다. *